

광주 시내버스, '현금 없는 결제' 안착

교통복지·행정 효율, 동시 달성
계좌이체, 모바일카드 확산 중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모든 시내버스에서 현금 결제를 전면 중단하며, 디지털 기반 요금 체계를 완전하게 정착시켰다. 이 과감한 변화는 시행 한 달 만에 시민의 불편 없는 적응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며 전국적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올해 초 광주 시내버스의 현금 이용률은 이미 1.6%에 불과했다. 교통카드 이용자가 98%를 넘어서면서도 낮은 현금화 관리 비용(연간 5억2천만원), 분실·정산의 번거로움 등 행정적 부담이 문제였다. 광주시는 경제·행정 효율과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해 현금 없는 버스 정책을 추진, 8월 1일 전면 시행에 돌입했다.

현금화 절거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두 단계로 이뤄졌다.

1단계는 도심 중심 노선, 2단계는 재래시장이나 농촌, 노인타운 등 취약계층 경로 노선에 집중했다. 시행 전까지 시민들의 현금 승차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며 점진적으로 안착시켰다.

시민 5,000명 대상 시범운영과 설문조사(응답자의 96%가 카드 결제 선호)를 토대로 실질 수요와 편의에 맞춘 정책 설계와 현장 피드백 반응이 이어졌다.

광주시는 계좌이체 안내문, 즉석 선불카드 판매(5,000원 충전 가능), QR 기반 모바일교통카드 도입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제공해 현금없이 누구나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어르신, 금융 취약계층, 외국인 등 디지털 소외 우려 계층에 맞춘 대책도 강화했다. 4개월 시범기간에 계좌이체 승차 32,163건, 선불카드 판매 405건이 이뤄졌고, QR 모바일카드 발급도 확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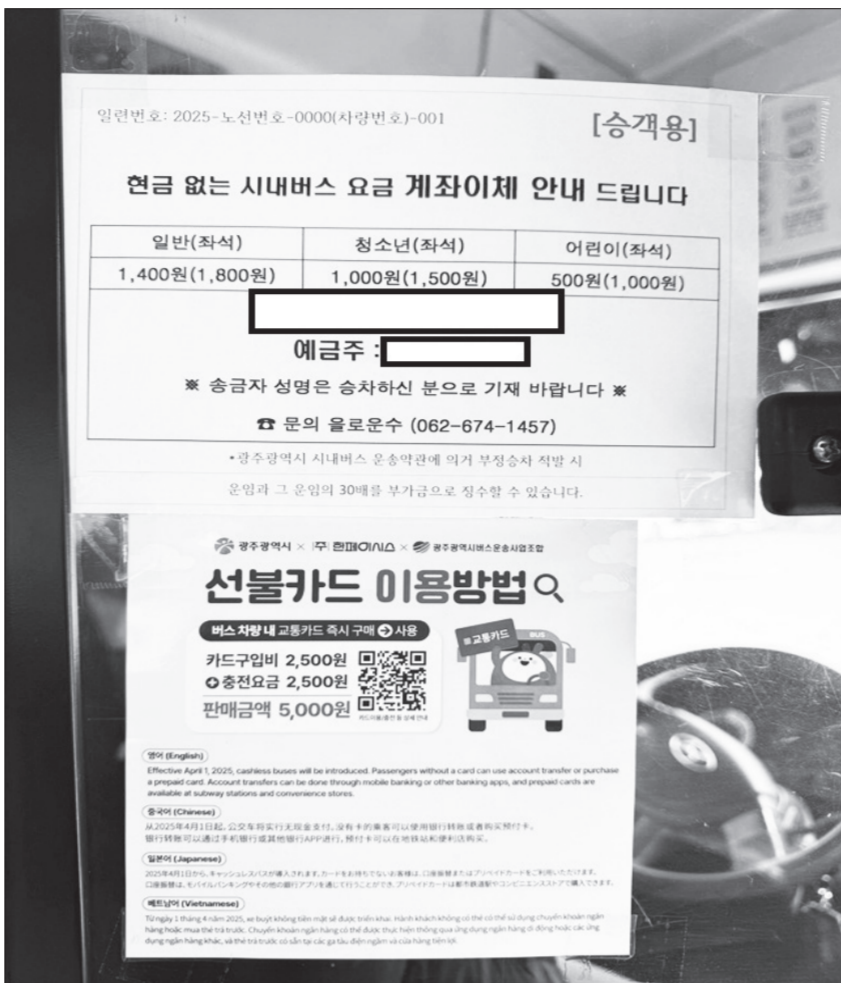
'광주G-패스'와 연계한 캠페인으로 K-패스 가입 어르신은 1,689명에서 8,111명으로 380% 폭증, 사회적 포용성을 입증했다.

운수종사자 2,200명 전원이 친절 안내 교육을 이수했고, 차내 안내문과 콜센터의 밀착 지원으로 디지털 취약계층이 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현장 신고나 혼란은 거의 없었고, 결제 속도와 만족도가 시행 전보다 뚜렷하게 향상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8월 1일 전면 시행 후 현금 결제 비율은 0.3%로 급감, 사실상 '현금 없는 버스'가 정착됐다. 시민들은 교통카드, 계좌이체, 선불카드, QR 모바일카드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외국인과 관광객도 큰 불편 없이 버스 생활을 경험하고 있다. 상당수 승객은 변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어 현금 승차가 사라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다.

기사들은 "현금 분실·도난·실랑이 걱정 해소, 안전 운행·수입관리 투명성 확보 등 긍정적 변화"를 증명하고 있고, 시민 만족도도 시범운영 시기보다 크게 높아졌다. 연간 5억2천만원 유지비 절감, 시내버스 안전성 강화, 쾌적한 환경 조성, 준공영제 운영 효율화 등 다양한 행정 효과가 실현되고 있다.

광주G-패스·모바일 연계 정책 확대, 복합쇼핑몰 연계 BRT 구축, 메타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현금 결제를 전면 중단하고 디지털 요금 체계를 정착시켰다. 시행 한 달 만에 시민 불편 없이 안착하며 행정 효율성까지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버스·AI 기반 정보 안내 등 광주의 스마트시티 전략은 시내버스 혁신 모델로 전국적 주목을 받고 있다.

연말까지 계좌이체·선불카드 등 대체수단 실효성 분석, 개인정보 보호 강화, 맞춤형 대책 마련, 안내 매뉴얼 고도화 등 보완책도 계속된다.

운영절차 간소화, 실시간 현장 피드백 시스템, 시민 모니터링을 즉각 시행해 시민 목소리를 정책에 빠짐없이 반영하고 있다. AI 기반 행정(생성형 챗봇·당직 안내 등)과 결합된 스마트 교

통 인프라로 교통 민원과 정보 안내가 하루 24시간 실시간 제공된다. 이는 교통혁신과 도시행정이 동시에 진화하는 광주형 복지 행정 모델의 완성 단계로 평가받고 있다.

배상영 광주시 대중교통과장은 "올해는 현금 없는 버스와 광주G-패스 전면 시행, 노선 개편 등 교통 복지 혁신의 본격 도약기"라며 "시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전국적 모델이 될 체감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홍석기자**

보이스피싱에 속은 70대 女 택시기사 기지로 피해 막아

딸 목소리 속여 '금 바꾸라' 지시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인출해 금으로 바꾼 70대 여성이 택시기사의 빠른 기지 덕분에 피해를 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영광군의 한 수녀원에서 생활하는 A씨(75)는 휴대전화로 걸려온 낯선 번호를 받았다. 전화를 건 남성은 자신을 금융감독원 관계자라고 밝히며 "사용 중인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말을 전한 뒤, "소지한 돈을 모두 인출해 금으로 바꾸라"고 지시했다.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흔히 사용하는 전형적인 금감원 사칭 수법이었다.

A씨는 이 말을 그대로 믿고 곧바로 영광 소재 금융기관을 찾아 한평생 모아둔 현금 1억 원을 전액 인출했다. 이어 인근 금방에서 금 130돈을 구입해 보자기에 담은 뒤, 지정받은 목적지를 향해 택시에 올랐다. 조직원이 안내한 곳은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숙박업소였다.

택시 이동 중에도 A씨는 조직원과 계속 통화했으며, 대화 도중 여러 차례 '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

나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걸쭉한 남성의 말투였고, 이를 수상히 여긴 택시 기사는 곧장 경찰에의 심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은 우산지구대 경찰관들은 숙박업소 앞에서 대기하다가 A씨를 지구대로 동행했다. 그러나 A씨는 "연락이 올 때까지 숙박업소에 머물러야 한다"며 여전히 보이스피싱 범 죄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약 1시간에 걸쳐 구체적인 수법을 설명하며 끈질기게 설득했고, 결국 A씨는 범 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

경찰은 A씨를 다시 거주지인 수녀원으로 안전하게 돌려보냈으며, 택시기사로부터 무사히 도착했다는 확인도 받았다.

한용복 북부경찰서 우산지구대장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장시간 통화하다 보면 피해자가 범 죄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A씨도 자칫하면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숙박업소에서 장시간 머무르는 '셸터 감금' 피해를 당할 뻔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신속하게 신고해 피해를 막아낸 해당 택시기사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고홍석기자**

음주운전 교통사고 최다 지역 '광산구·여수'

광주·전남에서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광산구와 여수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이 4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광주에서는 광산구가 698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북구는 650건, 서구는 610건, 남구 200건, 동구 131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기간 사망자는 북구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산구는 9명, 서구 4명, 남구 3명, 동구 1명으로 집계됐다.

전남에서는 여수가 520건으로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했으며, 목포

450건, 순천 373건, 나주 228건, 해남 124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수에서는 해남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순천 7명, 목포 6명, 보성·장흥·여수가 각각 4명을 기록했다. 해남은 사고 건수가 적은 편이지만 치명적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병도 의원은 "음주운전 사고 자체는 감소 추세지만, 특정 지역이나 도로에서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청은 사고가 잦은 지역을 면밀히 분석해 집중 단속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의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홍석기자**

광주서부교육청·광산구, 군공항 인근 학교 소음 피해 대응

지속가능 '대자보 도시' 구현
시민 공익참여 활성화 목표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군 공항 인근 학교의 학생, 교직원들이 겪는 소음 피해 대응에 나선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1일 대화의실에서 이성철 교육장, 박병규 광

산구청장, 김명수 광산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공항 소음피해 학교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군 공항 소음으로 인해 인근 학교의 학습권·건강권 침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서부교육지원청과 광산구, 광산구의회는 △피해 학교 대상 정

기 소음 실태조사와 정보공유 체계 강화 △방음시설 설치 등 실질적 환경개선 사업 추진△학습결손 방지 및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확대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공동 대응△실무협의체를 통한 현장 중심의 협력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각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며,

소음피해 학교 지원을 위한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서부교육지원청은 협약을 계기로 군 공항 인근 학교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지원, 교직원 건강보호, 학교 환경개선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업무협약이 군 공항 소음피해로 고통 받는 학생, 교직원을 보호하는 첫 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홍석기자**

깨끗한 광주 우리가 책임집니다!

광주환경공단

깨끗한 환경으로 시민행복 증진

지구를 구하는 일상생활 분리배출!